

大學人과 言論文化

方 廷 培

(成均館大 新聞放送學科)

I. 머리말

너무나 평범하고 고리타분하기까지 한 文化 개념에 대해 여기서 새로이 왈가왈부할 필요성이나 의미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主題 “大學人과 언론 文化” 아래서 논의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그 평범하고 보편적인 文化의 특수영역에 해당하는 엘리트文化나 지식인 文化 및 그 主體인 大學人계층이란 점에서 文化 생성의 보편논리가 언급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 表現과 말과 글과 상호 이해의 인간행위인 언론활동을 중심으로 생성·산출·영위되는 언론 文化의 특수성과 고유성에 대한 논의는 大學自律化나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민족 文化의 ‘앞마당’이 大學이라야 하겠다는 大學 文化 활성화의 바램과 운동에 기여하는 시의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본 논의는 文化의 主體로서의 大學人계층과 그들의 학내 각종 언론활동 및 그에 의해 구성되고 제도화되는 언론의 文化마당들의 특수성을 지적하고 언론적 文化마당의 學內·外的位相과 의미를 짚어 보는 순서로 진행하겠다.

II. 大學 文化의 形成과 特性

우선 文化라는 이름을 얻으려면 그것은 人間

의 유의미한 만드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das Geschaffene)’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안 만들어진 것 곧 본래부터 거기 있는 것(das da)으로서의 自然과 文化는 대립한다. 그러므로 文化는 人工인 것이라야 하며 人爲인 법주이어야 하며 그것을 만드는 主體는 사람이며 사람을 위해 생성되고 사람을 위해 향유된다.

그래서 그 主體가 大學人이란 특수 사회계층이며 大學이란 특수 마당에서 형성, 향유, 전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大學 文化는 특수 문화이며 엘리트적 知性人의 문화로 분류될 수 있다. 어느 사회나 국민 다수를 점하고 있는 大衆이나 民衆들도 그들의 활동에 의한 각종 文化를 산출하고 또 향유하는 바 이들 다수 계층의 기층 文化를 民衆 文化 혹은 大衆 文化로 볼 때, 학술, 예술, 과학기술 등 고도의 정신활동을 매개로 형성되고 전수되는 지식인 계층의 엘리트 文化는 선도적이고 향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大學人에 의해 大學이란 마당을 중심으로 엮여지고 있는 大學 文化는 본질적으로 고급적이며 극도의 정신적이고 창의적인 文化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文化는 人間에 의해 인간을 위해 생성되고 존재하므로 반드시 어떤 ‘가치’와 ‘의미’를 함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말은 혼란 흠이나 들, 나무 등이 人間 활동에 의해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짚이고 혹은 구워져서 옹기나 항아리, 돌

항아리나 돌지붕, 돌화살 혹은 기둥이나 家具 등의 가치를 가진 유용한 그 무엇으로 변동되고 의미를 부여받는다라는 것이다. 없는 가치, 無意味에서 값어치 있고 의미있는 그 무엇으로의 변동은 文化 과정이며 그러한 변동 촉발자는 人間으로서 文化的 존재이고 그러한 변동의 결과 얻어진 값있는 그 무엇은 文化物이 된다는 것이다.

목수들과 석공에 의해 빚어지고 만들어진 文化는 예컨대 가옥이나 건축 文化 등으로, 용기장이에 의해 빚어지고 굵혀져 만들어진 값진 질그릇 등의 가치 체계로서의 文化는 그릇 文化 혹은 용기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흙이나 돌이나 나무 등의 단순한 물질적 재료라기보다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知識이나 관념, 아이디어 정보 등을 주원료로 삼아 그것을 더 값지고 새로운 의미있는 것으로 변동시키고 만들어내는 大學人들의 文化 행위란 이론과 학리와 과학과 이념과 이상 등의 고등 가치들을 생산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가치를 생산하는 일체의 인간의 유의미한 행위는 文化 행위이며 그것에 의해 산출되는 일체의 가치와 행위양식·과정·방법 모두를 총괄하여 文化라고 定義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막스 헤라는 人間 삶에 필요한 가치의 삼각도를 작성하여 물질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 예술적, 미적, 文學的인 가치 및 종교적 가치들의 위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 위계를 따질 필요 없이 일체의 이러한 종류의 가치들을 만드는 인간의 활동과정이 文化과정인 것만은 확실하며 이런 가치체계는 곧 文化를 형성한다. 인간적 삶을 위해 응용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 삼각도에서 제시된 가치 위계상 윗부분의 가치들의 생산은 그러니까 주로 사회의 엘리트 층이나 소수 지식인들에 의해 산출되고 있다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를 생산하는 文化 행위는 人間 行爲에 국한하며 조건반사나 충동에 바탕하여 활동하고 행동하는 동물세계에서는 상정될 수도 없고 그들 금수의 세계는 人間의 文化 세계에 비해 야만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그 文化가 가치와 의미 체계를 함축한다는 의미는 나아가 文化의 축적과 변동, 발전 메카니

즘을 가진다는 것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人間의 주거 文化가 수혈과 동굴의 상태에서 마천루와 고층아파트 文化에로의 변동 발전은 몇만 년의 세월 동안 땅굴과 수혈을 그대로 파고 짓는 두더지나 짐승의 무발전과 무변동과는 달리 ‘가치축적’의 文化 독특성을 적시해 준다. 그래서 文化와 人間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변동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가치와 文化는 축적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지적되며 가치 축적과 가치 증대 과정이 바로 변증법적으로 발전·변동하는 ‘文化운동 메카니즘’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다음 가치창출과 文化의 만듦이 이와 같은 人間의 유의미한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가를 밝혀 주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그 활동은 다른 아닌 의도와 계획적 창조행위인 바 이것은 물질적 가치를 산출하는 노동생산 활동과 내면적 지식과 경험을 말과 글, 회화, 조각과 몸짓 등으로 表出하여 外化하는 인간의 文學, 학술, 이론 등의 정신활동으로 大別된다.

그러나 이 모든 후자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은 일체의 表現과 外化를 위한 언어활동으로 집약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왜냐하면 서적이거나 유인물 등의 知的 가치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회화나 조각, 음악 등의 작곡행위도 모두 인간의 고등정신과 의식을 그것에 담아 表現하고 객관화함으로써 이런 조형, 음악의 表現형태들도 모두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아 제 3자에게 시공을 초월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언어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전시되고 있는 로맹의 조각들은 지금 여기서도(hic et nunc) 로맹의 정신과 의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체의 가치는 상징체(언어체계)란 용기에 담겨져 축적되고 보관되고 혹은 전달 향유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빵공장이나 우유공장 혹은 기업체에서 노동자와 종업원들이 그들의 창조행위인 생산노동에 의해 빵과 우유 등 물질적 가치를 산출하고 있다면 大學에서 대학인들의 창조행위인 말과 언어 행위(이 경우 포괄적인 의미의 언어행위를 말함)에 의해서는 이념과 새로운 지식과 學理와 새로운 기술과 기예가 大學 文化로서 산출되고 있다

고 절론내릴 수 있다.

Ⅲ. 大學이란 文化集團의 변동과 大學言論의 등장

그렇다면 그러한 고등가치와 이념, 학리, 이론 등을 생산하는 고도의 정신문화 집단으로서의 大學과 행동主體인 大學人들은 빵과 가전제품 같은 物的·경제적 가치 산출 집단인 '돈', '이윤' 등과 관련하는 기업이나 경제집단과 다르다. 마찬가지로 같은 정신적 이념집단으로서의 권력을 추구하는 이기적 전락활동과 특수 집단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을 설득하고 응변하고 타협과 협상을 하는 정당 같은 정치, 이념집단과도 구별된다.

學理나 이론의 생산활동으로서의 大學 마당에서의 大學人의 文化·학술활동은 어떤 특징인이나 특수 단체를 위해서 영위되는 않으며 사회 전체적 보편 이익과 公益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므로 이타적 이념집단 활동이다. 또한 大學이란 이념·가치집단은 예술·文學 같은 문예·학예 등의 협회나 단체들과도 다르며 구별되는데 그것은 大學이란 마당은 고도의 정신적 가치와 이념을 개발하고 학리를 생산함에 있어 교수에 의한 탐구, 敎授활동과 학생들에 의한 탐구, 修學, 授業 등의 가르침과 배움의 학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人間形成 및 수양과 교양의 인간성숙을 가능케 하는 특수 마당이라는 데서 여타 이념, 예술 집단과도 구별된다.

大學은 이런 의미에서 가장 이타적이며 公益에 기여하고 불편부당하며 일체의 강제나 억압이 배제되어야 할 자유롭고 공정한 人間の 교류마당이기에 不足함이 없다. 또한 그럴 것을 요청하면서 진리, 정의, 자유, 공의를 본질이념으로 삼아 왔다는 것은 그것이 영위하는 탐구와 연찬과 修養의 인간됨 활동을 위한 필연적 귀결이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는 大學은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와 경제적 이기집단이 갈등하는 사회를 중재하고 혹은 화해시키는 중립적이고 현실 초월적 사회세력이라고 규정했는지 모른다.

물질적 이윤 추구나 권력 획득 등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회의 여타 하위文化집단들의 갈등과 세력 게임에서 大學은 그것의 이념, 존재목적, 활동 특수성 등으로 말미암아 배제되어 왔고 현실 초월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大學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론과 새로운 학리문 산출하지 못하고 혹은 현실 삶에 앞서가는 진리 이념과 정신적 선도가치를 생산하는 데 실패한다면 大學存立의 목적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현실 초월적 大學은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치창조 행위의 탐구, 학습, 교수, 연찬은 자유이념의 자기 실현과정 속에서의 진리발견 행위와 人間性 개발 활동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거나 억지, 강제에 의해서는 사이비 진리만 찾아진 것처럼 진리발견 활동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大學은 사회의 일체 개입이나 강제가 배제된 '상아탑'으로서의 완전 자율과 自治가 행해져야 할 사회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가 상공사회로 質·量的 변동을 함에 따라 상아탑적 大學의 연찬, 탐구, 인격도야 등의 諸文化, 學術활동과 對社會의 위치는 변경과 개혁을 강력히 요구받게 되어 大學은 기능사회에 조응하는 기능대학으로 변모했다. 그 말은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을 大學이란 敎育기관이 量產해 줄 것과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는 사회의 유용한 상호작용적 하위체제로 탈상아탑적 기능대학으로 내력을 것이 요청되었다는 사실이다. 사회와 분리된 하나의 고고한 學理와 진리와 이론의 文化기관이 아니요 수신과 인격도야의 낭만적 상아탑이 아니라 사회발전에 유익한 기술과 지식을 생산하고 고등 기술인력을 배양해 내는 산학협동 체제의 사회의 한 하위체제로서의 기능집단으로서 사회에 깊숙이 편입되는 대단위 기능 大學으로 일반화하게 되었고 大學은 깊숙이 세속화된 大衆大學으로 발전한다.

人類文化가 사회산업화 및 공업적 생산에 의해 기계적 物質文明으로 변질함에 조응하여 大學도 大量·거대·속세화한 기능大學들로 본격적으로 변화해 갔다. 산업사회의 본질은 복잡적이고 기능적이며 거대한 조직체로 구성되는 특징을 가지며 그럼으로써 大學도 기능사회의 一部分 집단으

로 깊숙이 사회에 편입될 것을 강요받는다. 大學生 인구가 백만을 넘어선 한국의 大學도 전형적 기능 大衆大學의 모습을 갖추었고 산업역군을 量産해 내는 기능인력 양성소 비슷한 꼴을 하고 있다. 그러나 大學이 아무리 그 존재양식과 活動 형태가 변동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본래적 정신적 가치창조 행위인 文化·학술활동, 곧 탐구와 연찬, 가르침과 배움, 인격형성 등의 행위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당위성을 갖는다.

상아탑적 현실 초월의 고등 文化와 진리·이념 생산적 大學과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적 지식과 기능, 기술, 기능인력 배출적 大衆 기능 大學이 어느 것이 좋고 나쁨의 가치판단은 고려할 수 없다. 역사와 사회에 따라 그 좋고 나쁨의 가치판단이 바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大學에서 생산되고 있는 文化와 학술지식은 사회여타 조직과 집단들의 文化보다 더 理想的이며 따라서 고상하며, 이념적이고 정신적이며 人間·人格的 가치들이란 의미에서 사회현실(속세)에 확실히 선도적이고 지도적이며 모범적일 것이 포기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 사회의 미래와 희망 및 발전은 그 사회가 선도 文化 집단과 현실 초월의 가치집단으로서 大學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현실 사회의 정치나 경제세력에 적지 않은 간섭과 자주성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후진국 大學들은 현실초월(미래 지향적)의 이념집단으로서의 자리를 이미 포기한 속세화한 '大衆大學'의 典型을 이루고 있다고 단언해도 좋다.

거대한 大學, 기능적으로 사회현실과 긴밀히 상호작용해야 하는 산학협동적 大學, 예비 기능 산업역군으로서의 大學生 大衆을 포용한 세속적 大學은 산업사회적 기능대학으로서 미디어적 言論의 기능을 필수적으로 요청하게 되었다. 이것은 大衆화한 익명의 大學生 상호간의 인격적 접촉, 교수 학생들간의 대화 등의 그 규모나 이질성 때문에 어려워지고(大學內的 이질성 증대) 게시판이나 文藝 전달 등의 公示기능으로 學內 情報 교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곤란한 거대한 조직으로 大學이 커버린 것이 大學의 미디어적 언론활동 도입의 계기가 된다.

취업정보 및 아르바이트 알선 정보, 文化, 예

술계의 발표회, 전시회, 학술모임 등에 대한 學外的 정보의 교내 확산을 비롯하여 學內的 각종 심포지움, 세미나, 단과별·학과별 학술회의, 토론회 등의 엄청난 학내 활동에 필요한 情報 전달, 확산, 이질화하고 익명화해 간 학생 大衆, 교수, 직원들간의 간접대화의 통로 제공 등의 大衆的 정보전달 활동의 필요성이 大學言論의 현대화와 다양화를 물고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현대 기능 大學의 아카데미즘은 大學 저널리즘과 合流하여 활성화하게 된다는 명제를 제기하고 있다.

Ⅳ. 大學 言論文化 대 反抗的 地下言論 文化

모든 사회 하부체계가 거미하게, 기능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복합적으로 구조화하고 조직된 사회가 현대 산업사회적 大衆사회라 하거나 그렇게 기능적으로 원활하게 움직이는 사회란 의미에서 정제사회에 대비되는 울동적 사회라고도 명칭하고 있다.

律動的 사회는 급속한 속력으로 변화하며 그 속에서의 諸社會的 과정이 질량적 변동을 동반하고 있는 사회를 지칭한다.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개인과 제조자, 집단들은 그들의 태도와 행위를 변동하는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動的으로 移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이나 단체가 환경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삶의 糧食은 더 많은 지식과 경험과 상식 등의 일체의 情報이다. 動的 사회를 구조화시키고 지탱하는 사회체계로서 정보전달과 유통 및 정보생산 전문미디어 산업이 등장한 것도 이런 관련에서 필연적 과정이었고 현대 언론의 大衆化나 신속화의 과정이 진행되어 울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오늘의 동적 현대 산업사회를 정보화사회니 지식사회로 명명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며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모터는 언론 및 미디어 체계이고 그 에너지는 정보와 지식이라고 단언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와 언론의 관계가 이와 같은 포리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大學이란 하위 文化體系가 사회환

경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對社會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情報생산과 유통 및 전달의 역할을 행사할 大學內 언론·홍보 전문 담당 기구들이 요청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언론’ 관계 못지 않게 ‘大學-大學言論’ 관계도 밀접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學內 정보·지식 전달기구로서의 大學言論이 大學人들의 정보수요에 부응하고 그들의 탐구·연찬·교수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필수적 大學下位 조직과 형태로써 大學文化 형성에 어떻게 기능하고 어떤 존재 양식으로서의 位相을 점령하고 있는가?

大學人들의 의미있는 활동과 행위 곧 文化 행위에 의해서 산출되는 가치들은 학술 활동과 진리 탐구 등의 활동의 행위 특수성으로 인해 지극히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고등가치들, 곧 知識, 이론, 人格性과 규범 혹은 실용적 기능지식들로 나타난다. 그것들은 이미 언급한 바대로 말과 언어 등 상징체계란 容器에 담겨져 객관화되고 보편화된다. 그러므로 大學人의 文化는 상징적 文化 혹은 언어文化的 특징을 지닌다.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로서의 이론이나 지식 등의 과학적 산출물은 물론 大學文化的 핵심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고립적으로, 일개인에 의해서 한 사람의 思考의 결과물로 성립되지는 않는다.

즉 그들 大學人 상호간의 人格的 접촉과 대화와 토론, 서적, 학술이론 등을 통한 간접적 정보 수용과 커뮤니케이션이 大學人의 학술활동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大學人들의 활동이 탐구 활동 하나만으로 국한되지는 않으며, 교수와 학생간의 人格的 대화나 大學人들 상호간의 의사·정신교류 및 그들이 공통적으로 엮어 내는 유우머와 낭만과 멋의 課外文化活動 역시 학술文化和 쌍벽을 이루며 人格형성과 인간완성을 위한 교양의 자양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넓게 보면 大學이란 학문과 人格共同體는 大學人들 사이의 관계와 접촉과 협동과 공동노력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 발전된다는 의미에서 정보와 의견, 감정, 지식 교환 등 언론마당과 커뮤니케이션 場들로 조직되는 하나의 動的 집합조직이

다. 그 말은 대학인들의 만남과 접촉과 정보 교환의 언론마당이 기능적으로 활성화되고 表現과 행동과 그것을 섭취하는 정보接受 활동이 자유로울 때 大學文化는 꽃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大學人들을 상호접촉케 해 주고 직접·간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담론과 언론의 마당들은 무수히 많다. 그 마당들은 그러니까 大學文化를 생산해 내고 동시에 大學文化를 향유하면서 大學文化를 질량적으로 변화시키는 動的 文化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마당들은 크게 형식적이고 제도화된 마당과 비형식적이고 非法制的 마당으로 구분되며 大單位的인 마당과 小單位的 마당, 학술마당과 놀이 등 비학술마당, 정규마당과 비정규적 행사마당 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또한 정보 교환과 교류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마당을 좁은 의미의 언론마당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술미디어적 언론마당(大學신문, 大學방송 등)과 非技術미디어적 홍보활동(자종 게시판이나 벽보, 연설, 시위 등)으로 구분되고, 기술미디어 언론은 다시 인쇄미디어와 방송으로 구분 가능하다. 또한 法制的 언론과 비정규적 지하언론으로 대분될 수 있다. 지하언론은 다시 엘프 등의 유성 언론활동과 유인물 언론활동으로 세분될 수 있으며 後者の 이러한 非法制的 언론마당과 활동에 의해(그것도 의미있고 계획적인 지식인의 활동인 한 文化행위임은 명백함) 산출·형성되는 大學人의 文化 양식은 하나의 대항文化 및 대립 公開場을 형성하여 大學文化的 변혁적 기능을 강력히 시사한다.

필자는 여기서 각종 학술의 마당(교실강의와 수업 등)이나 校內 행사와 놀이마당에서 형성되는 총체로서의 大學文化는 고급정신 文化로서 하나의 원칙성과 正體性 아래서 산출되고 또한 그렇게 형성된 正體性和 보편성은 大學의 主體의이고 자율적인 大學 이상과 理念으로서의 大學共同體精神을 결과해 낸다는 사실에 注目코자 한다.

V. 結 語

그러므로 大學精神은 그것을 형성하는 각종 文化산출 마당들의 개별성을 통합하고 거기 참여하

여 활동하는 개별 大學人들의 개별성을 조화하여 하나로 만들어 주는 보편성을 가진다. 보편적 大學精神은 大學이란 全體 文化공간에서 활동하는 모든 文化생산 참여자들을 大學文化人답게 만드는 객관적 규범력을 행사한다. 그 말은 그 공동정신의 규범력은 모든 大學 個人人들의 자발적인 자기 고백에 의해 형성·유지·강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한 규범적이고 객관적인 힘을 가진 보편정신으로서의 大學精神이 大學人 구성원들을 묶어 통합하고 一體感을 가진 하나로 단결시키는 그 힘을 상실한다는 것은 大學의 自己正體性과 大學精神이 붕괴됨을 의미한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大學의 위기 혹은 방황과 낭패로 표현한다.

한국 大學이 학생운동이나 관련개입 등의 요인에 의해 內面的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大學의 自己正體性이 그런 세력들에 의해 크게 훼손돼 있다는 말이다. 탈리 표현해서 正體性 산출의 大學文化 마당들이 고유의 大學文化 생산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 文化活動의 마당들 중에서 제도적 言論文化마당(신문과 방송 등 大學 미디어 언론이 그 대표자격)들이 大學 正體性 형성과 통합의 기본 메카니즘임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場外'의 비정규적이고 非法的 언론마당들에 의해 도전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 전달이나 언론활동에 있어 참말(진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신뢰의 근본이다. 신뢰는 언론 활성화의 토메라는 것이 신문학의 ABC다. 學內的 언론이 신뢰를 잃으므로 비제도적 學內 言論마당들에 의해 도전당한다는 것, 그리고 비신뢰적 大學言論이 大學人을 통합하여 하나로 묶는 보편적 규범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이 비제도적 지하언론의 도전과 그런 무법언론

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大學의 文化 활성화의 도구로서 또 文化마당의 핵심마당으로서 大學言論이 신뢰를 회복하고 활성화된다면 地下언론은 저절로 빈사할 것이라는 것도 자명하다. 대자보, 깃발, 민주회보 등 비정규적 벽보나 유인물, 서클회지나 금지된 팜플렛과 결단 등의 지하언론이 오히려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획득하는 역현상이 벌어진다던 大學의 위기와 大學언론의 위기는 심각하다. 유언비어가 기성사회의 언론의 신뢰성을 능가하여 창렬하고 언론이 사회통합의 힘을 상실, 사회 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이 不信 大學言論은 자주적 大學文化 형성의 위기를 맞게 한다. 이 말은 정규적 大學言論에 의한 大學文化의 산출과 형성 및 大學 正體性 강화는 그것에 대립하는 地下大學言論의 地下大學文化의 위기와 소멸을 의미한다. 學內 地下언론이 창렬하고 大學 正體性이 붕괴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적 大學 현실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大學文化의 단결 위험까지 예고하는 듯하다. 大學 正體性 회복과 大學文化의 활성화는 우선 學生과 교수와 직원들이 一體感의 연대의식을 회복하고 서로 신뢰하고 人格的 교류마당을 형성함으로써 재출발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진실과 신뢰의 '言論마당'이 재축성될 것과, 그 언론마당에 참여하는 大學인 모두가 계급적 대립의식을 止揚하고 협조적 동반자로서의 마음가짐이 先行해야 한다. 그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그들 학생들과 同質의이며 同類的이라는 교수상, 그들과 결코 대립적이고 적대적이지 아니라는 비어용 교수상이 확립돼야 한다. 그들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적대(?) 세력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교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大學人을 구성하는 학생-교수 협동적 공동체 형성과 大學文化 발전의 前提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